

#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신 지 연(Ji-Yeon Shin)\*

김 유 승(You-Seung Kim)\*\*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법』을 통해 지역도서관 지원·협력사업과 자료수집 및 보존업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설립·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보존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권역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미국 공동보존도서관 사례들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자료보존 업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보존공간 등의 필요성과 부재를 분석하고, 지역도서관 자료의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 선정 및 소유권은 참여도서관이,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권은 지역대표도서관이 나누어 갖는 모형을 제시하며, 공동보존도서관의 이용과 서비스에 있어 참여도서관 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까지 개방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ABSTRACT

The study aims at discussing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which not only support various types of regional libraries and conduct cooperative businesses with them, but also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preserving library materials. The study analyzes concepts and types of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y literature review and explores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Futhermore, it conducts a survey and finds that the regional central libraries do not perform their preservation functions, due to the lack of their manpower and budget.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an establishment plan for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which participant libraries hold ownership of transferred materials and regional central libraries own the right of management. Also, it suggests to expand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service coverage from participants to regional communities.

키워드: 보존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 도서관법, 도서관정보정책

Deposit Libraries,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Regional Central Libraries, Acts on Libraries,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ies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jsesi79@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1년 8월 18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9월 6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관은 도서, 정기간행물 등의 출판물로부터 각종 시청각 자료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자원을 공공에게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자료의 소장뿐만 아니라 보존을 통한 항구적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출판물의 증가에 따라 도서관은 장서 소장 공간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때문에 상호대차, 공동목록, 분담수서 등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공동보존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동보존도서관이란 보안과 보존환경이 통제된 시설을 통해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는 도서관이다. 미국의 경우, 1938년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New England Deposit Library)’을 시작으로 2001년 설립된 ‘연구 수집·보존도서관(Research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에 이르기까지 지역별·관종별로 공동보존도서관이 활발히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자료공동보존을 위한 도서관 간 협력을 비롯한 공동보존도서관의 체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공동보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료의 공동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자료보존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대표도서관에 주목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간 협력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공동보존도서관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 제23조 제4호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은 공동보존도서관의 핵심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공동보존도서관의 실질적 토대가 부족한 우리의 상황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이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공동보존도서관을 위한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도서관 지원·협력 사업과 자료수집 및 보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크게 공동보존도서관에 대한 연구와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공동보존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한 초기 연구,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설립을 위한 참조모형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국가 주도의 국가보존도서관 모형에 관한 최근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한 초기 연구 성과로는 대학도서관 공간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도서관 신축·증축, 자료의 디지털화, 장서폐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내 최초로 보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한 조용완(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조용완은 국외의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 형태

를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설립 방식으로 권역별 공동보존도서관을 제안하였다. 한편, 강미희(2003)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수·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를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공동보존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료소장 공간의 포화상태가 1~6년 이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공동보존에 대한 요구가 도서관의 규모, 유형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설립 모델을 제시한 연구 성과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국외 주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에 관련된 특성을 분석한 광동철·심경·윤정옥(2007)의 연구가 있다. 후속연구로, 윤정옥·심경·광동철(2007)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 및 특성을 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가주도의 국가보존도서관 모형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강현민(2006)의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윤희운(2006)의 '국내도서관 자료보존 현황 및 공동보존 구축방안', 강미희(2008)의 '국내 도서관 공간포화 원인과 공동보존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2005)의 『공공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2005』를 기초로 한 강현민의 연구는 각 도서관별 보존서고운영 예산, 인력, 시설 등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 방안으로 국가차원의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지역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윤희운 역시 도서관 자료보존 공간의 해법으로 국립중앙도서관, 공동보존관(국립지역분관), 지역대표관의 역할 분담 모형에 기반을 둔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한편, 강미희는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전제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운영주체가 되고 관리권은 공동보존도서관이 가지되, 공동보존도서관과 공동보존 참여도서관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국내 모든 기관 및 이용자에게 완전 개방하는 국가보존도서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공동보존도서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전개되며, 도서관계의 관심을 받아온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최근 연구 성과들로는 김세훈·심효정, 배순자, 한복희 외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세훈·심효정(2008)은 16개 시·도 지역대표도서관 추진 실태점검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시키고 표준 조직 구성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배순자(2008)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복수계층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지역공공도서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공동보존과 지역정보자료의 통합체계 구축,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복희 외(2010)는 좀 더 미시적 관점에서, 대전지역 도서관 간 협력 및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의 지역적 범위·관종·분야를 고려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협력체계 모델과 운영모델,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공동보존도서관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해외 사례들을 근거로 공공 및 대학도서관 등 관중별 보존도서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내에서의 적용 방안과 모형을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특히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거점형 공동보존도서관 모형이 다방면에서 검토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국가보존도서관 모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와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보존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상호연계성 없이 별개의 영역에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법』이 부여한 지역대표도서관의 보존 기능에 주목하여, 이들의 지정·설치시 공동보존도서관을 건립·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의의를 찾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동보존도서관의 정의와 기능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은 보존도서관(Deposit Library)을 “각 도서관에서 서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도서 및 기타 인쇄물 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공동으로 보존하는 도서관”(사공철 외 1996)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도서관의 서가나 서고의 공간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교적 이용이 낮은 자료들을 별치하여 보관하고 보존하는 곳”이 보존도서관이란 것이다(강현민 2006). 이는 본래의 도서관과는 독립된 장소에 건립된 시설로서, 도서관 내부의 공간에 이용이 낮은 자료를 별치하여 운영되는 보존서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보존도서관은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 협정에 의해 참가도서관들의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로 규정된다. 또한, IFLA는 공동보존도서관의 개념을 “일반 이용자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을 이관할 수 있는 도서관 저장시설”로, 『해로드 사서용어집』(Harrod's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은 “예산의 절감과 서비스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 도서관들의 연합이나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보관시설”로 설명하고 있다(Prytherch 2005).

이상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동보존도서관을 “둘 이상의 도서관이 지역별, 관중별로 상호 협력하여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 보존하고자 하는 자료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보관하는 시설”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동보존도서관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관리·보존하여, 서고 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할 뿐 아니라, 충분한 자료실 공간을 확보하여 최신자료 이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최적의 환경에서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며, 공동보존으로 자료관리 업무량을 감소시켜 경비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보존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협력을 바탕으

로 한 공동보존을 통해 참여도서관 간 이관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 기능, 둘째, 희귀 도서 등 보존 필요성이 있는 이관 자료를 보존·복원하는 보존센터의 기능, 셋째, 폐기 및 이관을 위한 평가 선정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강현민 2006, 33).

## 2.2 공동보존도서관의 유형

오코너(O'Connor) 등은 공동보존도서관을 보존공간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관형 보존관(Institutional Storage), 조합형 보존관(Cooperative Storage), 협력형 보존관(Collaborative Storage), 지역도서관센터(Regional Library Centre), 국가 보존도서관(Repository Libraries)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O'Connor 외 2002, 261-262). 각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첫째, 기관형 보존관은 가장 일반적인 보존도서관의 유형으로 이용도가 낮은 자료나 보존을 요하는 특수자료의 보존을 위해 건물을 도서관 내·외부에 건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설립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며, 관리권·소유권·운영권 모두를 설립기관이 단독으로 갖는다. 즉, 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해 설립되는 시설이라

기보다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형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개별 보존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형 보존관 유형은 “경영 효과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이라기보다는 보존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의 대책”이라고 평가된다(강미희 2008, 75).

둘째, 조합형 보존관은 두 곳 이상의 도서관이 공동으로 보존도서관을 설립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다. 시설은 공동 운영하지만 이관된 자료에 대해 소유권과 이용권을 공유하지 않고 참여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소유한다. 서고의 일정 공간을 할당받은 각 도서관이 유지비용이나 기타 경비를 사용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형태다. 다시 말해, 공간의 대여만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도서관은 일정 공간만을 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관형 보존관에 비해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셋째, 협력형 보존관은 여러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자료를 보존하며, 이용권한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운영권을 공동보존도서관 조직 안에서 공유하며, 소장 자료의 이용권한 또한 함께 참여한 다른 도서관들과 공유한다. 하지만 이관된 자료의 최종 소유권은 각 참여도서관에서 갖는다. 참여도서관들은 복본, 자료의 상태와 소유권, 장서의 주제와 형태, 다른 도서

<표 1> 공동보존도서관의 유형

유형별	운영 주체	소장 자료	
		소유권	이용권한
기관형 보존관	설립기관 단독	설립기관 단독	설립기관 단독
조합형 보존관	참여도서관 조합	개별 참여도서관	개별 참여도서관
협력형 보존관	공동보존도서관	개별 참여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과 참여도서관 공유
지역도서관센터	공동보존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전 지역 공유
국가보존도서관	국가보존도서관	국가보존도서관	전 지역 공유

관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는 장서개발정책 수립도 함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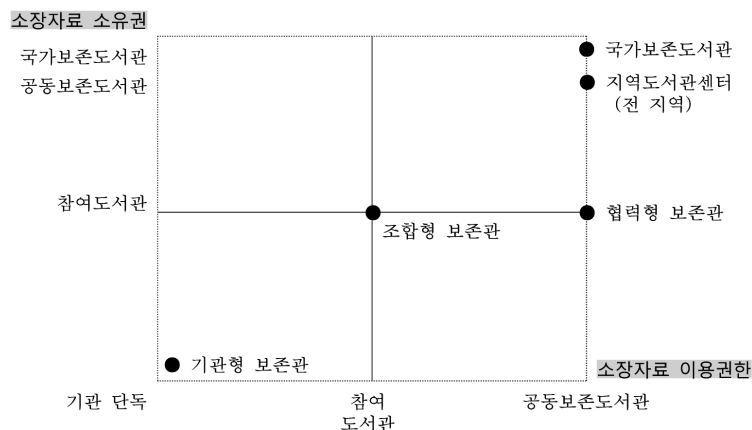
넷째, 지역도서관센터는 공동보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장서개발기능도 수행하는 형태다. 지방정부가 운영주체가 되어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써 자체적인 장서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고가자료, 희귀자료, 절판자료의 입수에 중점을 두고 입수, 관리, 이용자 서비스로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공동보존도서관에서 운영권과 소유권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이용권을 전 지역이 완전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자 서비스에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는 유형이다.

다섯째, 국가보존도서관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국립도서관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기능에 초점을 맞춰 설립되는 보존도서관의 형태로, 전국 도서관에서 보존 대상 자료를 이관 받아 국가서지의 수집 차원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이다. 개별 도서관의 자료를 위탁·관리하며, 장서 수집을 위한 납본업무도 수행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동보존도서관의 유형들

을 소장자료의 소유권과 이용권한을 기준으로 삼아 포지셔닝해보면 <그림 1>과 같다.

기관형 보존관은 사실상 개별적 보존시설로써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설이 아니다. 또한 국가보존도서관 유형은 개별 또는 지역 도서관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서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2가지 유형은 관중을 망라하는 도서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부여받은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의 공동보존도서관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조합형 공동보존도서관은 소장자료의 소유권과 이용권한을 참여도서관이 유지, 관리하는 낮은 단계의 공동보존으로 의의를 가지며, 협력형 공동보존도서관과 지역도서관센터의 유형은 조합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유권과 이용권의 적극적인 공유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보존도서관 유형들은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논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림 1> 소장자료의 소유권과 이용권한에 따른 보존도서관 유형

### 2.3 지역대표도서관의 정의

지역대표도서관은 2006년 10월 『도서관법』<sup>1)</sup>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이용자 대상의 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 도서관 기능보다 정책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는 도서관이다(곽동철 외 2007, 41). 구체적으로는, 공공·대학·전문·학교 도서관 등 지역 내 모든 관중의 도서관을 지원하고,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김홍렬 2009, 119),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sup>2)</sup> 제15조는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도록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 운영하고, 각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 별로 세분화되어 수행되던 도서관 관련 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하여 관중별, 설립·운영주체별로 다원화된 프레임을 공동협력체제로 묶어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3조에 규정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는 ‘도서관정책 지원기능’, ‘지원협력

기능’, ‘자료보존 기능’, ‘조사·연구 기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김세훈, 심효정 2008, 4). 첫째, 도서관정책 지원 기능은 지역대표도서관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 도서관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며, 정책추진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관중의 도서관 간 지식정보자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자료보존기능은 광역자치단체의 발행자료를 수집하고, 지역납본센터의 역할을 하며, 지역분담수서 구축과 공동보존서고 운영, 지역 지식자원 아카이빙, 공공도서관 자료 공동보존을 위한 업무이다. 넷째, 조사·연구기능은 도서관시책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연구, 자치단체 의정활동 지원, 지역향토 연구 지원, 지역고유 지식자원 DB개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업무들 중 지역대표도서관에 주어진 자료보존 기능에 주목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보존서고의 운영현황을 매년 1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해당지역의 도서관협력을 주도하고, 지역보존서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동보존이 지역대표도서관의 중요한 업무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대행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납본센터의 기능

1) 『도서관법』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전부 개정된 바 있다. 현행 『도서관법』은 2011년 4월 5일 일부 개정되어 동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9528호이다.

2) 대통령령 제22625호, 2011.1.17, 타법개정.

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자료 및 향토자료에 대한 납본기능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행하는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중앙관의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지역 내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확장 및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지역자료의 효과적인 납본을 유도하고, 자료공동보존 기능과 연계하여 납본 자료의 지역보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세훈 2007, 75-76).

#### 2.4 지역대표도서관 추진현황

2006년 『도서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이 공포되고, 2007년 6월 지역대표도서관 표준조례가 배포된 지 4년여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이 확정된 지역은 16개 광역자치시·도 중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도 등 7곳뿐이다.<sup>3)</sup>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이 공포된 것은 지방분권화라는 사회적, 정책적 흐름에 따라 도입된 성격이 강하다. 실상 지역대표도서관 제도를 둘러싼 여건과 기반의 취약함은 이러한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의 지역대표도서관은 2011년 8월 현재 지정·설립된 지 불과 1년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전북도청도서관의 경우, 독립 시설 없이 도청 2층에 위치한 행정자료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이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도록 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2011년 3월 현재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경기·경남·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울산·인천·전북·제주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이다.<sup>4)</sup>

### 3. 사례연구

다음에서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관형이나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보존도서관이 아닌 지역대표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지역별·권역별로 운영되는 미국의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보존도서관을 살펴보고 각 사례의 공동보존도서관 유형과 운영주체, 서비스 방식 등 다양한 측면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공동보존도서관은 1902년 하버드대

3) 기존 도서관 중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대구광역시 중앙도서관, 전라북도의 도청도서관이며, 새롭게 설립된 도서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이다. 전라남도과 서울이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중에 있어 각각 2011년과 2012년 설립 예정이며,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가 건립 또는 지정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원도·경기도·경상북도·충청북도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북도는 2015년 이후 지정 또는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서 '대표도서관'을 검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임(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cited 2011.3.10] <<http://www.elis.go.kr>>).



학교의 총장 찰스 엘리엇(Charles W. Eliot)이 이용도에 따른 장서 분리보존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보존소 건립을 주장한 것이 효시이며(Vattulainen 1994, 11), 대부분 지역 단위도서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관 단독 보존관과 달리 협력을 통해 예산·부지확보·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이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보존도서관을 운영한다.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동보존도서관들을 앞서 살펴보았던 조합형, 협력형, 지역도서관센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2〉 참조).

### 3.1 조합형 보존관

조합형 보존관의 대표적 예로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New England Deposit Library)’을 들 수 있다.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은 ‘뉴

잉글랜드 지역보존관(New England Regional Depository)’으로도 불리며, 뉴잉글랜드 6개 주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으로 구성된 8개의 도서관들이 이용률이 낮은 자료들을 공동으로 보존하는 목적으로 193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건립되었다(Bridegam 2001, 4).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은 개별 도서관의 자체 선별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정하고 개별 컬렉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조합형 보존관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은 각 참여도서관이 분할 소유하고 운영은 윌리엄 메이어사(William B. Meyer Inc.)가 통합 관리한다. 고밀도 서가에 도서, 제본된 정기간행물, 표준 VHS, 마이크로폼 등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항온·항습시설, 방재시설 등 최적의 보존 환경을 갖추고 있다.<sup>5)</sup> 뉴잉글랜드 도서관협력체인 넬리넷(NELINET)<sup>6)</sup>의 회원기관인 700여 개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표 2〉 미국 공동보존도서관 유형별 사례

유형	사 례	운영주체	소장자료 소유권	소장자료 이용권한
A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 (New England Deposit Library)	전문업체 통합관리	개별소유	참여기관
B	미네소타 도서관 접근센터 (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	참여기관 공동운영	개별소유	외부개방
	워싱턴 연구도서관 컨소시엄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참여기관 공동운영	개별소유	외부개방
C	연구도서관센터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참여기관 공동운영	공동소유	외부개방

A: 조합형 보존관, B: 협력형 보존관, C: 지역도서관센터

5) 〈<http://www.williamsbmeyer.com/services/meyerlibrary/services.cfm>〉 [cited 2011.2.17].

6) 1976년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뉴잉글랜드 지역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들 간의 정보자원 및 서비스 공유, 협력,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조직으로 설립되었다.

### 3.2 협력형 보존관

협력형 보존관의 예로는 ‘미네소타 도서관 접근 센터(Minnesota Library Access Center)’와 ‘워싱턴 연구도서관 컨소시엄(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을 들 수 있다.

2000년 1월에 개관한 ‘미네소타 도서관 접근 센터’는 미네소타주 교육부와 미네소타 대학교의 미니텍스 도서관정보네트워크(MINITEX Library Information Network)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하 84ft, 길이 600ft, 폭 70ft, 높이 20ft의 동굴 형태의 시설로, 140만 권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고밀도서가를 갖추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교 트윈시티(Twin Cities) 캠퍼스 도서관과 덜루스(Duluth) 캠퍼스 도서관을 중심으로 미네소타주 100여 개 도서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MLAC 2002).

참여도서관은 이관할 자료를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별한다. 인쇄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관하며, 영화, 지도, 오디오, 비디오 자료 등은 소장이 제한되거나 선별하여 소장한다. 복본의 경우 직원의 재량에 따라 더 상태가 좋은 판본을 소장하거나 복본도 소장가능하다. 시설 내 서고는 폐가제로 운영되나 모든 자료들은 미네소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엠엔캣(MnCAT)이라고 불리는 미네소타 대학교 온라인 목록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관된 자료는 센터 차원에서 관리하지만, 이관된 자료가 중복으로 간주되어 폐기되었을지라도 공동보존도서관에 이관하고 폐기한 기록이 있으면 참여도서관의 통계에 포함되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워싱턴 연구도서관 컨소시엄’은 1987년 워싱턴 지역에 있는 8개 대학도서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역의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된 창고형 고밀도 공동보존도서관이다. 이 시설은 각 도서관의 자체적 기준에 의해 선별된 도서,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공동목록인 알라딘(ALADIN)을 통해 서지 및 소장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참여도서관들의 연회비로 운영되며, 공공요금과 유지비, 도서관 자료의 저장, 검색, 운반, 회수에 드는 추가 요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자료는 분담장서와 분담목록이 이루어지지만 고밀도 서가에 통합 배열된다. 참여도서관들은 장서개발과 장서관리, 장서정책수립에 다같이 참여하고 있다.<sup>7)</sup>

### 3.3 지역도서관센터

지역도서관센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연구도서관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를 들 수 있다. 미국 중서부 10개 대학도서관들에 의해 1949년 시카고에 설립된 중서부 도서관협동조합(Midwest Inter-Library Corporation)이 1965년 참여 대학도서관을 20개로 늘리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Bridegam 2001). 초기에는 지역기반의 상호 협력 업무로서 공동보존을 수행하였으나,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제적 수준의 공동보존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중서부 지역의 20개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250개가 넘는 미국 전역 및 캐나다의 대

7) About WRLC. <<http://www.wrlc.org/about/>> [cited 2011.8.15].

학, 연구기관,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공동보존도서관이다.<sup>8)</sup>

특히 연구도서관센터는 이용도가 낮은 자료의 위탁 이외에 각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 공동으로 수집하는 협동장서개발정책을 수행하며<sup>9)</sup> 500만 권의 인쇄자료, 박사학위논문, 신문, 잡지, 마이크로필름 등을 소장하고 있다. 한편, 저널 스토리지(JSTOR)를 통해 인쇄저널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인쇄저널의 보존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2009년 연감에 따르면 858개의 타이틀에 3만5천 권 이상의 전자저널을 보유하고 있다(CRL 2009). 연구도서관센터는 학술연구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컨소시엄으로 보조금, 기부금, 위탁 수수료로 운영이 되고 회원도서관들 간의 일치된 규칙과 회원도서관 대표들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과 정책을 결정한다.

### 3.4 사례분석

이상에서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사례로 미국의 공동보존도서관들을 살펴보았다. 조합형 보존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뉴잉글랜드 보존도서관'의 경우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하지만 개별 컬렉션을 구성하고 소장 자료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네소타 도서관 접근 센터'와 '워싱턴 연구도서관 컨소시엄' 등 협력형 보존관의 경우, 자료와 시설에 대한 이용·운영권한은 공유하지만, 소장 자료의 최

종 소유권은 개별 참여도서관에서 지니고 있다. 지역도서관센터인 '미국 연구도서관센터'는 장서수집 범위가 방대하며 전 지역 완전 공유함으로써 이용권에 제한이 없고 가장 많은 회원도서관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미국의 사례에서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한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방식 및 보존환경의 공통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이용되지 않는 자료들을 '하버드모델(Harvard model)'이라 불리는 고밀도 시설에 장기적 저장에 적합한 조건과 높은 보안성을 갖추어 보존한다(Payne 2008). 온습도를 조절하는 공조시설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하는 방제시설과 보안설비 등이 필수적이다. 둘째, 관리 운영 및 예산은 참여도서관의 관장급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며, 참여기관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비를 분담한다. 셋째, 서고 공간을 분리하여 각 참여도서관이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소유와 운영권한을 각 참여도서관에서 갖는 방식, 또는 관리·운영을 시설 운영자에게 위임하고 자료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여 서고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배열함으로써 자료의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넷째, 이관된 자료는 컨소시엄 공유목록 및 회원도서관 개별 목록에 수록됨으로써 회원도서관의 이용자는 개별 도서관 또는 공동보존도서관을 통해 직접 자료요청이 가능하다. 다섯째, 대출기간·연체·제한·자격 등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비회원

8)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시카고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맥길대학교, 토론토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cited 2011.2.16]. <<http://www.crl.edu/about>>.

9) CRL. Deposit Service Policy Statement. [cited 2011.2.16]. <[http://www.crl.edu/sites/default/files/attachments/pages/CRL\\_Deposit\\_Policy.pdf](http://www.crl.edu/sites/default/files/attachments/pages/CRL_Deposit_Policy.pdf)>.

자료나 중복되는 자료들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까지 참여기관들로 구성되는 의사결정협의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여섯째, 공동보존 도서관의 서가는 폐가제로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지만 시설 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소형 열람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일곱째, 자료는 주제가 아닌 너비와 높이를 고려한 크기별로 정리되고 청구기호 순이 아니라 자료의 크기에 따라 서가에 배열된다(Payne 2007; Murray-Rust 2004).

#### 4. 설문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 도서관 설립을 제안하고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공동보존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집·분석하였다. 다만, 2010년 말과 2011년 초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을 제외하고, 2007~2008년에 지정·설립되어 비교적 지역대표도서관으로의 운영이 활성화 단계에 이른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의 사서들을 본 설문의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서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웹 설문조사와 우편을 통한 질문지 발송방식으로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자관 자료보존 현황 파악과 자료공동보존 업무를 위한 공동보존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배포된 100부의 설문지 중, 68부가 회수되어 68%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회수된 설문지 68부 중 유효설문 65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료 보존서고의 유무에 대해 물었다. 보존서고는 이용률이 낮은 자료를 별치하기 위해 도서관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폐가제로 운영한다. 자관의 이용률이 낮은 도서나 희귀도서 소장 및 보존을 목적으로 보존서고를 설치 운영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65명 중 53명(81.5%)이었다.

보존서고가 있다고 응답한 53명 중 보존서고의 공간은 충분한가라는 물음에 22명(41.5%)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응답이 24명(45.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응답의 약 3.5배에 달한다(<표 3> 참조). 단위도서관들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대표도서관에서조차 보존서고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볼 때, 단위도서관들도 소장 공간 부족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자료보존 문제가 개별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도서관의 공통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자료보존과 관련하여 실행 중인 기능을 복수응답으로 물었다. 도서 및 기록물의 수집·보존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난 반면, 지역도서관의 자료를 이관하여 보존한다는 응답은 1명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자료의 공동보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3〉 보존서고 공간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보존서고 공간은 충분한가	매우 그렇지 않다	6	11.3
	그렇지 않다	18	34.0
	보통이다	22	41.5
	그렇다	6	11.3
	매우 그렇다	1	1.9
합 계		53	100

〈표 4〉 실행 중인 자료보존 업무(복수응답)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순 위
실행 중인 자료보존 기능	도서·기록물의 수집·보존	50	44.6	1
	향토자료, 정책자료 수집	33	29.5	2
	도내 출판자료의 납본과 보존	28	25	3
	지역도서관 이관자료 보존	1	0.9	4

지역 도서관 간의 협력을 통한 자료의 공동 보존은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로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보존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8명)이라는 응답에 비해 ‘추진 예정’(14명)이나 ‘계획 없음’(43명)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산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2명을 제외한 응답자 모두가 공동보존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공동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동보존 예산이 없을 수밖에 없으며, 공동보존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공동보존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부재는 공동보존을 위한 지역 내 도서관 간 상호 협력 계획도 문서화된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표 5〉 참조).

앞서 〈표 3〉에서 나타났듯이, 도서관 보존서고의 여유 공간이 점점 부족하게 되고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납본업무를 겸하고 있음

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에 적체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자료의 공동보존’이 42명(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의 폐기’에 33명(26.4%)이 응답하였으나, 비용부담, 책을 아끼는 전통적 관념, 시간 부족 등 장서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올바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신축·증축을 통한 건물건립’(23명)과 ‘자료의 디지털화’(22명) 순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표 6〉 참조). 개별 도서관을 위한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은 막대한 예산의 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자료의 디지털 작업 역시 비용과 저작권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보존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간부족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공동보존 정책 및 예산 수립 여부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공동보존 정책수립 여부	추진 중	8	12.3
	추진 예정	14	21.5
	계획 없음	43	66.2
공동보존 예산책정 여부	예	2	3.1
	아니오	63	96.9
합 계		65	100

〈표 6〉 도서관 공간 적체현상의 해소방안(복수응답)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순 위
서고 적체현상 해소방안	자료의 폐기	33	26.4	2
	자료의 디지털화	22	17.6	4
	자료의 공동보존	42	33.6	1
	신축·증축을 통한 건물건립	23	18.4	3
	지역사회 건물로의 자료이관	5	4	5

공동보존 활성화 장애요인을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설립 및 운영 예산의 부족'이 40명(33.3%), '공동보존 정책의 부재'가 35명(29.2%)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응답자들은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보존 예산과 정책의 부재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설립 및 운영 예산과 공동보존 정책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은 이원화된 도서관 행정체계는 공동보존 문제와 상대적으로 연관 관계가 적은 것으로 답하였다.

공동보존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소장 공간 부족문제 해결', '자료관리 업무 감소', '예산 절감', '이관 후 나머지 자료 이용률 향상', '공동보존 자료의 활용 확대' 등 5가지 항목으로 동의 정도를 설문하였는데, 모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표 8〉 참조). 특히, '소장 공간 부족문

〈표 7〉 공동보존 활성화 장애요인(복수응답)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순 위
공동보존 활성화 장애요인	인력 부족	17	14.2	4
	공동보존 정책의 부재	35	29.2	2
	설립 및 운영 예산 부족	40	33.3	1
	도서관 간 협력의 어려움	18	15	3
	이원화된 도서관 행정체계	10	8.3	5

〈표 8〉 공동보존의 효과 동의 정도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소장 공간 부족문제 해결	-	-	6(9.2%)	35(53.8%)	24(36.9%)
자료관리 업무 감소	-	9(13.8%)	15(23.1%)	33(50.8%)	8(12.3%)
예산 절감	11(1.5%)	8(12.3%)	19(29.2%)	30(46.2%)	7(10.8%)
이관 후 나머지 자료 이용률 향상	11(1.5%)	7(10.8%)	17(26.2%)	32(49.2%)	8(12.3%)
공동보존 자료의 활용확대	11(1.5%)	6(9.2%)	13(20%)	31(47.7%)	14(21.5%)

제 해결'에 가장 많은 동의를, 다음으로 '공동보존 자료의 활용 확대'에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한 자료의 공동보존은 단순히 서고 공간 해소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업무 전반에 다양한 효과를 동반한다는 점에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 나타났듯이, 공동보존도서관이 설립된다면 참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37명(56.9%)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11명(16.9%)은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동보존도서관이 설립·운영된다면 65명의 전체 응답자 중 48명(73.8%)의 응답자가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에 대한 응답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보존도서관이 설립·운영된다면 운영주체는 지역대표도서관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명(6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은 설립 운영

〈표 9〉 공동보존도서관 참여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공동보존도서관 참여	참여하지 않겠다	1	1.5
	잘 모르겠다	16	24.6
	참여하겠다	37	56.9
	적극 참여하겠다	11	16.9
합 계		65	100

〈표 10〉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주체

구 분	항 목	응답수(명)	비 율(%)
공동보존도서관 운영주체	국립중앙도서관	12	18.5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4	6.2
	지역대표도서관	45	69.2
	지방자치단체	4	6.2
합 계		65	100

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단위도서관들이 지역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관종을 중심으로 또는 지자체 산하 도서관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중관종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개념의 공동보존도서관을 고려할 때 적절한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 반면, 지역대표도서관은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단위 도서관들과 공동보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보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공동보존도서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보존하여야 할 자료로는 '회귀 및 귀중 자료'가 53명(4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국내외의

고서와 귀중서, 고문헌, 회귀서, 고가의 자료에 보존관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표 11〉 참조). 공공도서관의 고서와 귀중서 및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의 소장비율이 매우 낮고,<sup>10)</sup> 소장에 따른 전문적인 보존과 관리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면 공동보존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한 자료의 소유권은 공동보존도서관에서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39명(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2〉 참조). 이관은 물리적·법적 차원의 이송을 의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서관 평가에서 장서량이 중요한 기준임을 감안하면, 이관된 자료의 공동소유권을 갖거나 이관하더라도 단위도서관의 장서에서 제거하지 않고 소장 장소를 공동보존도서관으로 나타내는

〈표 11〉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복수응답)

구 분	항 목	빈 도(명)	비 율(%)	순 위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	복본자료	10	8.7	4
	폐기대상자료	6	5.2	5
	이용률이 낮은 자료	19	16.5	3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27	23.5	2
	회귀 및 귀중 자료	53	46.1	1

〈표 12〉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의 소유권

구 분	항 목	빈 도(명)	비 율(%)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의 소유권	공동보존도서관에서 소유권을 갖는다.	39	60
	자료위탁도서관이 기존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4	6.2
	자료위탁도서관과 공동보존도서관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10	15.4
	자료위탁도서관과 공동보존도서관 간 이관협약에 따라 재량권을 갖는다.	12	18.5
합 계		65	100

10) 공공도서관 장서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한 결과 1980년 이전 자료가 전체 장서 중 1%도 안 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도서관 자료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김선애, 서혜란 2009, 9).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기록물의 수집, 향토자료, 정책자료 수집, 도내 출판자료의 납본과 보존업무를 실행 중이었지만 지역도서관들의 자료를 이관하여 보존하는 공동보존은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공간 적체 해소방안으로 자료의 공동보존,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을 일순위로 꼽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는 각 도서관의 보존서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동보존 정책 및 예산 수립이 거의 전무하다는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설치 및 운영 예산 부족과 정책의 부재, 도서관 협력의 어려움 등이 공동보존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5.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모형

### 5.1 당면과제의 분석

공동보존도서관의 경험이 전무하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국내 현실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보존도서관 모형 제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먼저 정책, 조직, 기준 등 공동보존 도서관 구축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과제다. 공동보존도서관 구축을 위한 최우선 선행과제인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행 『도서관법』은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간 상호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대표도서관이 정착·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업의 범주는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선 연구를 통해 도서관 간 협력 사업에서 공동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 추진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공동보존을 위한 실질적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의 도서관 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은 법령이 부여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임에도, 이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 간 협력을 기반을 둔 공동보존이라는 과제에 있어, 지역대표도서관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장단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아말로 공동보존을 위한 지역단위의 다양한 도서관들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강화시키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역대표도서관 설치조례의 제정과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및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에 요구되는 예산·인력·시설 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문제다. 다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특정 업무의 완수는 이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보존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는 필수이다. 그러나 공동보존을 위한 전담부서나 인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 기능 실현을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하며, 법이 부여한 대표도서관의 주요 임무를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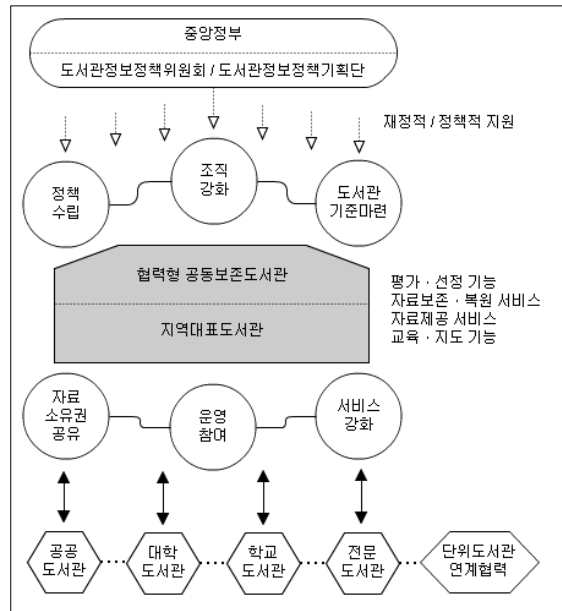
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운영의 지침서로 도서관 운영의 평가 척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에서 펴낸 한국도서관기준은 1981년 제정 후 2003년 개정된 것이 최신판으로,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구분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대표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일정한 시설과 예산, 장서, 인력을 확충하여 『도서관법』이 부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의 공동보존도서관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자료의 공동보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 마련은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육성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에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총괄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5.2 모형 설계

앞선 선행연구 분석,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본 연구는 현단계 우리나라 도서관 실정에 맞는 공동보존도서관은 조합형 보존관과 협력형 보존관의 특징을 혼합한 유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대표도서관에 기반한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 모형을 재정, 운영,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모형

이 모형은 중앙정부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이용 및 개방여부를 포함한 운영 전반을 지역대표도서관에서 맡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단독 또는 분산 운영하거나 관종별 차원에서 공동운영 하는 기존 공동보존도서관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 또는 지역단위 도서관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운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모형의 목적이다. 또한 현단계에서는 공동보존도서관 소장자료의 선정과 소유권은 참여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지만, 점차적으로 장서관리정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력형 보존관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모형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 재정 측면이다.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을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예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선도적 지원 없이는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과 공동보존 협력 및 자료이관 등을 위한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단위 도서관들의 공동보존 참여를 위한 예산을 지역대표도서관에 지원함으로써 공동보존도서관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 측면이다. 이관된 자료의 관리·운영은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의 공동보존도서관에서 맡아야 한다. 반면 이관자료 선정 및 이관된 자료의 소유권은 조합형 보존관의 유

형을 따라 참여도서관들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소장자료의 성격·종류·소유권을 결정하여 공간을 나누어 배가함으로써 운영 예산을 회비로 납부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보존도서관으로 이관된 자료는 개별 컬렉션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소장되지만 점차적으로 이관한 자료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복본을 제거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서선정협의회 등의 구성 및 협의를 통하여 단일본만을 소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동보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장자료의 성격과 종류는 우선적으로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등의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설문에서 조사되었던 것처럼 '회귀 및 귀중자료', '이용률이 낮은 자료' 등의 순으로 자료 이관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용률이 저조한 자료나 복본자료라도 내용의 가치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자료의 최종 대출 시점을 고려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인쇄 자료 이외의 마이크로필름, 음반자료 등의 매체는 별도의 환경과 소장공간이 필요함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인쇄자료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서비스 측면이다. 도서관 자료보존의 목적은 책의 장기적 이용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공동보존도서관의 목적인 자료의 격리와 접근제공이라는 두 가치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접근을 배제하면서 폐쇄적으로 보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접근 허용을 통해 도서관 자료의 가용성을 보장

해야 한다. 공동보존도서관의 이용과 서비스 범위는 협력형 보존관의 특성을 수용하여 참여 도서관 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참여기관이 아닌 도서관과 지역주민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공동보존도서관의 서비스 범위와 참여기관의 수를 점차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소장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상호대차, 원문제공, 외부 대출, 시설 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서비스 대상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 6. 결 론

본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도서관 설치·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공동보존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자료보존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의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공동보존도서관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보존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고 권역별로 협력체계를 구성해 운영 중인 미국 공동보존도서관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자료보존 업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보존공간 등의 필요와 부재를

그리고 지역도서관 자료의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도서관 구축이란 명제 앞엔 많은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 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공동보존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동보존도서관 기준 마련 등 공동보존도서관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다. 소장자료의 적체현상에 따른 관리와 장기적 이용가능성의 보장을 둘러싼 어려움들은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도서관계가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며, 공동보존도서관의 구축은 이 문제들을 위한 최적의 해법이기에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보존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공동보존도서관 이관자료 선정 및 이관된 자료의 소유권은 참여도서관이, 공동보존도서관의 운영권은 지역대표도서관이 나누어 갖는 모형을 제시하며, 공동보존도서관의 이용과 서비스에 있어 참여도서관 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고, 나아가 참여기관이 아닌 도서관과 지역사회로 까지 개방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16개 시·도 지역대표도서관 공동보존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천적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동보존도서관을 위한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축계획, 시설 및 장비, 자료보존 기술 및 환경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미희. 2003. 『국내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 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 대학원.
- \_\_\_\_\_. 2008. 국내 도서관 공간포화 원인과 공동보존 전략 -국가보존도서관 설립을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12: 67-88.
- 강현민. 2006.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이용한 공동보존도서관 및 국가보존도서관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9-53.
- 곽동철, 윤정옥, 광철완. 2007.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곽동철, 심경, 윤정옥. 2007.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51-78.
- 국립중앙도서관. 2005. 『2005년도 도서관협력망 운영실태 자료집 공공도서관』.
- \_\_\_\_\_. 2005. 『국립중앙도서관 2010』.
- \_\_\_\_\_. 2011. 『2010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연보』.
- 김선애, 서혜란. 2009.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51-164.
- 김세훈, 심효정. 2008.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319-337.
- 김세훈. 2007. 『지역대표도서관 기반조성 및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과제보고서: 75-76.
- 김홍렬. 2009.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115-132.
- 배순자. 2008.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45-59.
- 사공철 외.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윤정옥, 심경, 광동철. 2007.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5-51.
- 윤희운. 2006.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11-34.
- 조용완. 2003. 보존도서관 공동설립을 위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21: 130-145.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0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복희, 이성숙, 이상호, 오종필. 2010.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체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267-295.
- Agee, Jim and Naper, Sarah. 2007. "Off-site Storage: An Analysis." *Collection Building*, 26(1): 20-25.
- Bridegam, Willis. 2001. *A Collaborative Approach to Collection Storage: The Five-College Library Depository*.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cited 2011.2.16].

- <<http://www.clir.org/pubs/reports/pub97/contents.html>>.
- \_\_\_\_\_. 2004. "Print Preservation at the Local Level - The Five College Experienc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8(1): 29-38.
- CRL. 2009.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9*. [cited 2011.2.16].  
<[http://www.crl.edu/sites/default/files/attachments/pages/CRL\\_AR2009.final\\_.pdf](http://www.crl.edu/sites/default/files/attachments/pages/CRL_AR2009.final_.pdf)>.
- MLAC. 2002. *Packet for Depositing Libraries*. [cited 2011.8.15].  
<<http://www.minitex.umn.edu/Storage/Deposit/Packet.pdf>>.
- Murray-Rust, Catherine. 2004. "Library Storage as a Preservation Strategy." *Advances in Librarianship*, 27: 168-169.
- Nitecki, Danuta and Kendrick, Curtis. 2001. *Library Off-site Shelving: Guide for High-density Facilities*. Libraries Unlimited.
- O'Connor, Phyllis and Smith, Melanie. 2008. "Ohio Regional Depositories: Moving from Warehousing Separate Collections to Servicing Shared Collections." *Collection Management*, 33(1-2): 129-142.
- O'Connor, Steve, Wells, Andrew and Colier, Mel. 2002. "A Study of Collaborative Storage of Library Resources." *Library Hi Tech*, 20(3): 258-269.
- Payne, Lizanne. 2007. "Library Storage Facilities and the Future of Print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OCLC Programs and Research*. [cited 2011.3.7].  
<<http://csul.net/storage/reports/oclc.pdf>>.
- \_\_\_\_\_. 2008. *Trends in Shared Library Storage and Shared Collection Management*. [cited 2011.2.17].  
<[http://www.arlisna.org/news/conferences/2008/proceedings/ses\\_09-payne.pdf](http://www.arlisna.org/news/conferences/2008/proceedings/ses_09-payne.pdf)>.
- Prytherch, Ray. 2005. *Harrod's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10th ed. Burlington: Ashgate.
- Seaman, Scott. 2005. "Collaborative Collection Management in a High-density Storage Facil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6(1): 20-27.
- Slote, Stanley. 1997. *Weeding Library Collection: Library Weeding Methods*. 4th ed. Libraries Unlimited.
- Vattulainen, Pentti. 1994. "Managing the Finnish National Repository Library." *Library Management*, 15(7): 10-15.